



나도 혹시 호모포비아? Homophobia

동성애공포증 (Homophobia)

논리적인 배경없이 동성애나 동성애자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혐오나 공포는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편견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신도 혹시 호모포비아인가요?

호모포비아 체크 리스트

- ★ 나는 동성애자 직장 동료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Yes / No
- ★ 옆집에 사는 사람이 동성애자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Yes / No
- ★ 나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로부터 프러포즈를 받을 경우 기분이 매우 나쁠 것이다. Yes / No
- ★ 만약 길거리에서 동성간의 애정표현을 본다면 매우 불쾌할 것이다. Yes / No
- ★ 나는 내 아이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Yes / No
- ★ 내 가족 중 한명이 커밍아웃을 한다면 가족 간 인연을 끊을 것이다. Yes / No
- ★ 내 아이의 교사가 성소수자라면 즉각 학교에 항의할 것이다. Yes / No
- ★ 학교교육에 성소수자와 관련된 교육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Yes / No
- ★ 성소수자 인권문제를 언론에서 접하면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 Yes / No
- ★ 나는 성소수자들의 모임이나 행사가 붙은 선전물을 보면 이유없이 기분이 나쁘고 제거하고 싶다. Yes / No

위 문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 하나라도 체크가 되었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그 이유가 과연 타당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상담을 하고 싶거나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고 싶다면

동성애자인권연대

www.outpridekorea.com
lgbtpride@empal.com
02-778-9982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령이

www.gendering.org
gendering@gmail.com
0505-991-1104

한국레즈비언상담소

www.lsangdam.org
lsangdam@lsangdam.org
02-703-3542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www.chingusai.net
chingu@chingusai.net
02-745-7942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
kscrc@kscrc.org
0505-896-8080

열린가족지원센터

www.openfamily.or.kr
openfamily@hanmail.net



성소수자 자녀나 친구를 이해하기 위해 함께 보면 좋을 책

『Is It a Choice? - 동성애에 관한 300가지 질문』

에릭마커스 지음 컴투게더 옮김 박영출출판사, 2000

『못 생긴 트랜스젠더 김비 이야기』 김비 지음 오상, 2001

『동성애의 심리학』 윤가현 지음 학지사, 1997

『앰 아이 블루?』 매리언 데인 바우어 외 12인, 베크 인더우드 그림, 조용주 옮김 남기열라, 2005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다니엘 헬미니악 지음, 김강일 옮김 도서출판 해울, 2003

『고정관념Q - 동성애』 공자그 드 라로크 지음, 정재곤 옮김 웅진자식하우스, 2007



단체발간 자료

『선생님, 저 동성애자인 거 같아요』 동성애자인권연대 2007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기초교육 자료집』 동성애자인권연대 2007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지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05

『2006,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06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부모들이 알고 싶어하는 37가지 질문』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7

이 리플렛은 아름다운재단 게이미슨서 기금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무지개는 일곱빛깔 색처럼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를 꿈꾸는 성소수자들의 상징입니다

편견을 넘어 함께 보는

무지개 세상
rainbow world

동성애자인권연대

www.outpridekorea.com



www.openfamily.or.kr

우리 사회에는 많은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차별과 혐오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소수자들은 바로 이웃집에 있을 수 있고 내가 일하는 회사나 학교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에도 성소수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어려움을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기본! 올바른 용어쓰기

동성연애 NO! 동성애 YES!

동성애는 말 그대로 같은 성을 사랑하는 성적체성을 말합니다. 여성으로서 여성을, 남성으로서 남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적 대상으로서 동성이 같은 생물학적 성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일시적이거나 단순한 취향에 의한 육체적인 성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이성과 성경험을 갖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겠죠!

성소수자를 부르는 여러 이름들

호모 Homo

동성애를 종교적, 도덕적으로 모멸하는 용어를 대신하여 의학적으로 고안해 낸 용어입니다. 당시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병리학적인 인식으로 만들어진 용어였지만 점차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성소수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모"라는 표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성소수자를 부르는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도록 해요.

Lesbian 레즈비언

여성동성애자를 지칭합니다.

Gay 게이

'호모'라고 불리기를 거부하는 동성애자들이 어두운 이미지를 대체하는 밝은 이미지의 '기쁨'이라는 의미, 남녀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이나 지금은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Bisexual 바이섹슈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적지향을 지닌 양성애자를 뜻합니다.

Trans-gender 트랜스젠더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을 지닌 이들을 모두 말합니다. 성전환(확정)수술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지칭함으로 외모나 복장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성소수자(LGBT)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내 자녀가 성소수자"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등) 래요!"

—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들이 가질 수 있는 물음들 —

혹시 부모에 대한 반발심이나 잘못된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사회는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전제 아래 끊임없는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동성애에 관한 정보를 많이 보면 변한다', '부모-자식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럴 수 있다' 등등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때로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실험들도 해왔습니다.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들도 내 자녀가 왜 성소수자인지 끊임없이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동성애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해서 그런 것인가? 하며 계속 그 이유를 찾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성애자로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어떤 잘못된 경험 때문에 이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듯이 성소수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힘들게 자신의 성적체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녀를 그대로 인정하고 힘이되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치료를 하면 다시 바뀌지 않을까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의 충격으로 인해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시도하거나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당신의 자녀들은 이미 성적체성을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치료들을 해왔습니다. 병원에만 가지 않았지,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인가'라는 물음을 끝없이 되내이며 자신의 성적체성을 찾아 왔습니다. 동성애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치료로 회복이 가능할까요? 어쩌면 치료를 시도함으로써 부모-자녀간의 불신이 더 커질지 모릅니다. 치료를 시도하는 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읽어보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생활하여 가족구성원들은 우리에게 가장 원초적이고 친밀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대부분의 부모들은 충격과 함께 일종의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편견으로 인한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부모들조차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이 잘못 키웠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심하게 울기도 하고 때로 자녀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모두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상처까지 모두 가족의 몫입니다. 상담의 통로조차 찾지 못하는 부모들은 자신들만의 비밀로 남기게 되고 궁금한 질문들에 대한 답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면에 모든 물음들을 담을 수는 없지만 이것은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들은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고 하는데, 내 자녀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편견 중 하나가 성소수자 대부분이 '성(性)에 대해서만 집착한다' 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변태같다, 비정상이다, 성도 착증 - 정신질환' 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동성애라는 표현은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행위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 항목에서 동성애가 빠진 지도 30년이 넘었고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에서도 1992년 동성애를 정신이상의 범주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사실 만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그(녀)의 삶의 태도는 이전과 다름없습니다.

내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한국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야 하기 때문이죠. 당신의 자녀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성적체성을 말한 것도 매우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밝혀지더라도 하면 학교나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력, 해고의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제도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영역에 '성적지향' 이 포함되어 있어 구제신청을 낼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가 성적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과 격려, 지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매우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가족의 지지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이 나에게 성소수자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등) 라고 커밍아웃을 한다면?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체성(Sexual Identity)/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을 주위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위의 가까운 사람이 커밍아웃을 할 경우 당황하지 않고 커밍아웃을 한 당사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열 가지 태도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축하한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자신의 성적체성을 긍정하고 타인에게 커밍아웃하는 것 그 자체는 나름대로 자기 자신 속에 사랑의 가능성을 발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배제하고 성적체성을 찾는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긍정했다는 점을 우선 축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 당신을 신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동성애자들도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과 자신의 내면의 생각이나 느낌을 같이 나누고 싶어합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에게는 더욱 그런 감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신뢰하지 않으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커밍아웃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신뢰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커밍아웃한 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물어 본다거나 현재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최근 상황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피상적인 관심에서가 아니라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 전체를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물어 보는 것은 서먹한 분위기를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성경험에 한정해 물어본다면 상대는 오히려 거리를 두려 할 것입니다.

넷. 최대한 들도록 노력하세요!

커밍아웃은 성소수자들에게 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런 만큼 커밍아웃한 친구나 가족이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과정들과 커밍아웃을 통해 얻게 된 변화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상대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 하는데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다섯. 예전과 다름없이 서로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마치 무슨 큰 죄라도 고백한 양, 상대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에 무척 불안해지기도 하며 연락을 잘 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을 평소처럼 잘 안하게 되면 혹시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 건 아닐까 하는 조바심에 상대의 반응에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혹시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상대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이 사회에서 성소수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상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편견없는 사회라면 성소수자라는 말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오랜 세월 애써 가꿔 온 우정을 위태롭게 하거나 피를 나는 가족으로부터 외면받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괜찮아"하며 "너에게 큰 힘이 되줄까"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것 만큼 상대에게 큰 힘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곱. '날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와 같은 의심이나 '날 사랑한 적은 있어?'와 같은 질문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남자들의 경우 다른 남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면, 자기를 여성으로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단지 자신의 남성성이 도전받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성간에도 여자/남자라는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멋있는 점, 매력 포인트 등이 큰 영향을 미치듯이 성소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덟.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커밍아웃은 자기 자신의 일생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커밍아웃을 해서 상대가 받아 주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커밍아웃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당사자에 대한 최소의 예의로 자신의 선에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당신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로 커밍아웃을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홉. 모르는 것이 있다면 숨기는 것보다 솔직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삶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이 혹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하는 각성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도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실례가 되는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질문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상대는 반가워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채널을 총동원하여 모두 알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열. 유머감각과 친근한 표현은 상대를 편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커밍아웃을 하는 중요한 순간에 갖는 유머감각은 성소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습니다. 지나친 유머가 아니라면 혹시나 하는 우려 때문에 친근한 표현을 주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관계를 맺어왔던 태도 그대로 친근감과 유머감각을 보여주면 그 것으로 족합니다.